

오피니언

다산포럼

최일남



초고급급 투수로 호가 났던 광주진흥고 정영일이 미국에 진출한다. 입단 팀은 LA 에인절스.

그의 경기를 구경하지는 못했지만 야구 선수의 아이디어가 다름없는 기록이 아닌게 아니라 굉장하다. 한 경기 최대 탈삼진 23개에 149Km까지 나가는 직구와 130Km의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우완 정영일이다.

투수를 너무 혹사한다는 소리가 의당 나올만도 했는데 1m88cm-96Kg의 득직한 체격이 그만큼 팔심을 받쳐주는 모양이다. 100만달러로 낙찰된 계약 조건이야 어떻든, 이로써 한국 선수의 미국 진출이 31번째라는 사실에 유의한다.

박찬호가 야구의 본고장으로 떠난지 14년, 준비된 야망을 풀고 태평양을 건너 미완의 투기들이 그쯤 된다는 얘기를 그들이 남긴 성적표는 매우 쓸쓸하다. 박찬호, 김병현의 저런 성취가 믿을직스럽다. 서재응은 객관적 평가가 선함은 탭카베이로 지적됐을만큼 옛것에는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7이닝 1실점의 빛나는 호투를 과시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잘

안 보인다. 추신수가 뒤를 이어 한국인 타자의 외포를 면한 박찬호의 최후의 시련은 거로 역시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플래툰시스템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보스턴 산하 트리플A에서 내일을

기약하던 그는, 지난 5일 오른 무릎을 다쳤다.

저 살자고 하는 운동이요 선택이다. 구경꾼은 굶어 보고 떡이나 먹으며 긴장과 낙담을 즐기면 된다. 더구나 프로스포츠는 억만금의 돈놀이와도 같다. 그런 마당에 웬 격정이나는 편견을 들어 팔 노릇인지도 모르겠다.

맞다. 나는 그러므로 관중이 없어 해심해심한 그라운드에서 지지도로 스틱을 휘두르는 필드하기를 텔레비전이나 열심히 관람한다. 새까맣게 그들은 낚자군들의 얼굴을 특히 안쓰러워하면서,

비인기 종목이기는 마찬가지인 핸드볼 역시 빼놓지 않는다. 호말(胡謔)만한 양녀(羊女)들 다리 사이로 쓰러질듯 뛰어 들어 날리는 프론(prone) 점프 솟아떨어질, 일

대일 패스로 맨투맨 수비를 교란하는 한국 소제(小姐)들의 스크린(screen) 플레이에 탄복하면서,

하지만 세상만사 생각 나름이다. 재밌으면 다가가고 시뭏하면 외면할 따름인 것이 운동경기되, 광기 소리마저 들은 월드컵이 아니라도 우리 선수가 있어 흥미로운 게임이 나라 밖에 점점 많아진다. 돈과 상관없이 불가불 '국적'을 의식하게 하는 경기기.

LA다저스의 노모 히데오와 박찬호가 한일간 경쟁 양상을 부추겼다. 먼저 간 노

다. 상위 랭킹인 마에가사(前頭) 그룹의 하나인데, 그 이상 오르기가 버거운 기미다. 요코즈나 아사쇼류(朝青龍)를 비롯한 몽고 역사(力士)가 30명을 넘겨나와, 그들 속에서 다음 요코즈나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바로 밑 자리인 오제끼(大鵬) '하쿠호'가 몽고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국적에만 열매이지 않는 스포츠의 국제성이다. 태권도 또한 매일반이다. 태생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뿌리를 뻗는 과정에서 외국인 참가가 속속 나와야 한다. 말이 좀 수상하지만 국적이 있다라고 없고 없다라고 있는 것이 스포츠니까, 일본 유도는 그렇게 판도를 넓혔다.

혈전의 경기를 마친 지내던 지단과 루이스 피구가 웃음을 짓고 굳게 겨안은 심정 또한 유사할 것이다. 유니폼이 곧 국적이었으나 그걸 벗으면 친구요 세계인이었다.

은퇴를 선언한 일본 축구의 기동 나카타 히데오씨는,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에 새겨 앞으로의 내 나그네길을 헤쳐가겠다"는 고별사를 썼다. 아사히신문은 1면 톱의 과격으로 그를 위로했다. 잠재적 국적 의식의 다른 표현 아니겠는가. 우리라고 그런 마음 어디 같까.

열여덟 옛 선수의 장도에 빛대어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았다.

<소설가> 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여덟살 메이저리거

모의 활약은 눈부셨다. 신인왕과 탈삼진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며 비례 박찬호의 전적은 훨씬 미달했으나 전자는 어느덧 스테디존제다. 타자(打者)로는 최희섭이 마쓰이, 이치로 등과 견주기를 기대했으나 아직은 앞에서 언급한대로다.

대신 '요미우리'의 이승업을 저녁마다 대한다. 홈런, 득점, 장타율 1위에 100호 안타를 너끈히 통과했다. 다만 팀 순위가 꼴찌를 땀뿌아 딱하다. 천하의 '요미우리'가 동네북처럼 이 팀 저 팀의 승수 쌓기 상대로 죽을 썬지 누가 알았더라. 고군분투하는 승업 선수의 방망이도 그 통에 신이 안 나지는 '이때 한방'의 요긴한 순간을 무위로 돌리는 수가 적잖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일본 스포츠계에는 유일한 한국 장사 '가사왕'(春日王)도 있

시설

정부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라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갈수록 바닥을 기고 있다.

도심의 빈 택시의 행렬은 더욱 길어지고, 재래시장이나 도소매점, 중소기업의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요식·숙박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서민경기의 어려움은 지방이 훨씬 심하다. 농어촌 지역은 아예 경기라는 말이 실종되다시피 했다. 지방 중소기업은 공장을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만 쌓여 간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들은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길거리로 나왔게 생겼다.

무엇보다 불길한 점은 하반기에는 성장률의 둔화 추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 및 투자심리가 하락하고 있다며 하반기 성장을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4.4%로 낮췄다. 민간예측기관은 하반기에 성장률이 4%에도 못 미칠 것이

란 전망을 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인도 하반기 경제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말 3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82.2%가 하반기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하반기 최우선 경제운용 목표를 경기 활성화에 뒀어 한다는 응답이 77.7%나 됐다.

기업인들의 상황이 이러할 진대 서민들의 가계 형편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아직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을 뿐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을 한가로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민경기가 살려면 밑바닥부터 돈이 돌아야 한다. 가계부채 만기구조 다양화 등 돈의 흐름과 관련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 경제주체의 소비심리를 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경제에 '올인'해 서민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차시장-지역 국회의원 갈등 확산 안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간 갈등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TV

토론회 발언을 문제삼아 박 시장을 고소했고, 박 시장도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조영택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선거과정에서 비롯된 감정싸움이 법정장타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립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과 전 원 열린우리당인 국회의원들이 서로 화합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소속 정당이 다른 만큼 양측은 협력과

건전한 견제라기 보다는 '정치'수준의 양극이 더욱 깊어져 '회복 불능'의 상태로 번졌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으면 민선 4기 박광태 시장의 취임식에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을까. 사정이 이

렇다 보니 민주당 소속인 광주지역 기

토론회 발언을 문제삼아 박 시장을 고소했고, 박 시장도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조영택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선거과정에서 비롯된 감정싸움이 법정장타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립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과 전 원 열린우리당인 국회의원들이 서로 화합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소속 정당이 다른 만큼 양측은 협력과

건전한 견제라기 보다는 '정치'수준의 양극이 더욱 깊어져 '회복 불능'의 상태로 번졌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으면 민선 4기 박광태 시장의 취임식에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을까. 사정이 이

無等鼓

'공무원 페팅' 정식용어사전에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의 골퍼라면 누구나 다 아는 단어다. 흔히들 '공무원 빠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퍼팅한 볼이 턱없이 짧아 훌쩍이 못미쳤을 때 놀리는 말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싸잡아 깎아 내리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배짱도, 소신도 없는 퍼팅을 이르는 표현으로, 그것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축구'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다. 이번에는 한국이 아닌, 월드컵이 열린 독일에서 탄생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툰트샤우는 지난달 28일 스위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지루하고

아무런 영광을 주지 못하는 '공무원식 축구(Beamtenfussballs)'를 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직후 보도였다.

특히 스위스 선수들은 경기당일 오전 승부차기 연습에 삼혈을 기울였는데도 모든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어떤 영광을 주지 못하는 '공무원식 축구(Beamtenfussballs)'를 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직후 보도였다. 특히 스위스 선수들은 경기당일 오전 승부차기 연습에 삼혈을 기울였는데도 모든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어떤 영광을 주지 못하는 '공무원식 축구(Beamtenfussballs)'를 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직후 보도였다.

했다. "연습하면 뭐하나 결국 그 모양인데"식의 표현 같은데 견강부회(牽強附會)인지 몰라도 공무원 페팅과 비슷하다. 이 신문은 스위스는 걱정이 될 정도로 형편없는 경기를 했다고 덧붙였고 일부 선수들도 시인을 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공무원식 축구는 스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공격축구는 실종됐고 잠그기가 대세였다. 골가득이 극심해 전체 64경기에서 147골 밖에 터지지 않았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2.52골을 밀도는 평균 2.29골에 불과했고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16경기만 따지면 총 30골로 평균 1.87골에 그쳤다.

축구의 핵심은 골이 아니라서 골들은 많은 공이 네트를 갈라 주길 갈구한다. 축구가 계속 매력적인 스포츠로 남아 있으려면 공무원식이 아닌 골이 많이 터지도록 거듭나야 한다. 골키퍼가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는 구역은 줄이고 골대를 늘려서라도. /기현호 체육·여름채무부 khh@

'공무원 축구'



기고

김광수



환경규제가 점차 국제무역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환경규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해물질 규제 제는 지난 1일 발동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지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환경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바야흐로 환경규제에 대한 지역 수출업체들의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EU의 환경기준 적용대상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섬유 및 의류, 타이어, 종이류, 염료, 페인트, 세척제 외에 화학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을 포괄하고 있다.

EU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환경기

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7월 1일부터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지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해물질 규제가 적극 대응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유럽지역 유해물질 규제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소기업은 LG 이노텍 협력사 20개사를 비롯, 50여개 중소기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유해성물질 분석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은 대부분이다. 장기간의 시간 이 요구돼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 광주·전남지방중소

친환경 제품이 경쟁력도 있다

준 제정을 추진해온 산업은 화학산업 분야이다. 이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뤄졌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그 이후 환경규제 대상은 다변화되면서 전기·전자와 섬유·의류가 새로운 환경관련 규제대상으로 부상하는 추세다.

다행히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광·청정에너지, 디자인, 생물, 및 우주산업 등 친환경 관련산업을 지역전략 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어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듯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역활이다. 친환경 산업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환경분야에 인식을 새롭게 해 국제 환경규제

기업청은 지난해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6대(납·6가크롬·카드뮴·수은·브롬계난연제 2종 등) 유해성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를 갖췄다.

EU쪽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중기청 장비를 활용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LG 이노텍과 유해물질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협력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등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환경규제는 물론 친환경산업 육성에 지자체는 물론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과장>

유료 주차장, 흡집 책임 나몰라라 하니...

병문안을 갔다가 병원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원의 말을 듣고 승용차 열쇠를 남겨놓은 뒤 1시간여만에 나왔다.

차는 처음 주차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석쪽 앞바퀴 뒷부분이 손바닥 크기 정도로 긁혀 있었다.

주차 관리원에게 항의했더니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무슨 소리냐며 거듭 항의를 했더니 이번엔 서너명의 주차관리원이 함께 와서 빨리차를 빼지 않으면 다른 차들이 진·출입을

못하니 차부터 빼라고 욕박을 질렀다. 아예 관리원 중 한명이 내 차를 주차장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버렸다.

엄연히 차를 맡기면서 주차비를 지불하는데 차량에 흡집을 내고 나몰라라 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차량 열쇠를 남겨두라고 했는데 물건이라도 분실했다면 그때도 나몰라라고 할 것이지 묻고 싶지 않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소중한 미니돼지



외국에서는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례들이 가끔 소개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멧돼지가 주인을 따르고 아이들의 수레를 끄는 정겨운 모습이 담긴 TV 프로그램 소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돼지는 또 생명공학의 전병으로, 향후 인체 장치의 대체하는 동물로 이용되고 있다. 잡식성 식습관 뿐만 아니라 장기 구조도 인체와 가장 닮은 점 때문에, 전남대병원에서는 돼지를 이용한 연구와 실험이 이뤄진다고 한다.

게다가 돼지는 다산(多産)을 하는 동물이니 가능하다면 인체 장기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다.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자연의 흐름을 거슬리는 일들은 왠지 불안하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 미니돼지는 실험동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작고 다루기 쉬워서다. 하지만 미니돼지(베트남 돼지라고도 함)는 키워보니 의외로 질병과 환경변화에 약하고 새끼도 겨우 두 세마리 밖에 낳지 못한다.

돼지를 이용해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라면 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청소년 '알바', 부당한 대우받지 않게 실태파악 했으면

한두달전부터 편의점에서 오후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8시간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주가 당분간 밤 11시부터 한시간더 해달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시간 더 일찍 출근해 일을 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별 말이 없어 계속 하게됐다.

또 밤에 일하면서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까지 야식을 주지 않아 3일을 굶은 적도 있다.

달. 월급도 당초 정해졌 날보다 5일이 지나서 받았는데, 그나마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일

한 임금을 주간 임금으로 책정해 지급한 것이다.

'야간 임금으로 책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일주는 밤 12시 이전은 주간이라고 했다. 그러면 "처음 구두 계약할 때 이런 말을 왜 안 했냐"고 되물었더니 "깜박 있었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 그것만 받고 나와버렸다. 자녀벌이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까지 익숙한 핑거리는 그 업주가 그 사람뿐일까.

자치단체와 노동청 등은 실태 파악을 해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보라·광양시 도이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